

# 보성군, 세계유산 갯벌 ‘지속가능 모델’ 설계 나선다

갯대종 선정·서식지 복원·생태관광 논의  
탐조 프로그램·관리센터 필요성 등 제기

보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보성별교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 마련에 나선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를 개최해 보성별교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형빈 부군수를 비롯해 갯벌 생태 전문가, 지역 위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성별교갯벌 생태 환경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갯대종 선정 ▲서식지 복원 ▲생태관광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지역



보성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주민들의 삶,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강조됐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 구축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보성군은 현재 ‘보성별교갯벌’에 서식 중인

바닷새 74종 약 1만7천여 개체를 기초자료로 삼아, 향후 보성을 대표할 갯대종을 선정해 생태관광 및 지역 브랜드 자원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갯대종이 군의 생태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닷새 주요 서식지의 지속적 관리 및 탐

조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거점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 관리 센터’ 설치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센터의 기능과 운영 주체, 공간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성별교갯벌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2026 세계유산축전’ 제안서도 보고되며, 축전 개최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는 “보성별교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대표 갯벌 중 하나로서, 생물다양성과 함께 사람의 삶이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공간”이라며 “갯벌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향후 추가 생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원 대상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자연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갯벌 관리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성=임병영 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 日 오사카서 ‘세계섬박람회’ 홍보

전남도민회 간담회에서 주요 현황 소개

정기명 여수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일본 출장 중 오사카 통상사무소에서 전남도민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정 시장을 비롯한 시 방문단은 전남도 오사카 통상사무소에서 전남도민회 장대연 소장과 남광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과 주요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홍보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여수가 오사카에 비하면 작은 도시지만,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라며 “예울마루를 비롯해 대규모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적 저력이 높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그리면서 “해양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답이 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오사카 도민회에서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광일 도민회 회장은 “올해는 광복절이 80주년을 맞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며 “한일 우호 관계 발전과 민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섬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도울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도민회에서 운영 중인 국제교류협회 한국어 교실에도 K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며 “다양한 경험을 주

구하는 이들에게도 섬박람회 콘텐츠를 소개해 여수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명 여수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방문단 9명(시 5명, 조직위 4명)은 지난 1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으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흥군, 국제슬로시티 대상 ‘오렌지달팽이상’ 수상

고싸움 최고 점수…전통 농경문화 구현

장흥군이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해 국제슬로시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에서 슬로시티 대상인 ‘2025 오렌지달팽이상(CHIOCCIOLA ORANGE 2025)’을 수상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최된 이번 국제슬로시티 시장총회는 이탈리아 등 13개국, 200여명의 슬로시티 시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흥군은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이하 장흥 고싸움)로 ‘2025 오렌지달팽이상’을 수상했다.



국제슬로시티 도시 10개국 18개 도시에서 제출한 프로젝트와 영상을 슬로시티 국제과 학위원회 조정관 주세페 로마(Giuseppe Ro

ma) 주재로 관계자들이 6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이중 최고 점수를 장흥군이 획득하면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슬로시티에서는 ‘장흥 고싸움’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전통 농경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중요 행사라며, 슬로시티 정신을 대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했다.

장흥 고싸움은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장흥고싸움줄당기기보존회와 함께 보존·계승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슬로시티 철학을 바탕으로 장흥의 전통과 문화, 천혜의 자연환경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동화 같은 하루’…장성 베베나축제 열린다

28일 램프공원 일원서

장성군 동화면은 24일 “오는 28일 램프공원(남평리 236-1) 일원에서 ‘제2회 동화나라 베베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화면은 지난해부터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다년초식물 ‘베베나’를 램프공원에 심고 소규모 마을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 축제는 불거리·줄길거리가 한층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난타, 라인댄스, 고고장구, 동화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변경, 퓨전양상불, 트로트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소나무쉼터에서는 음악, 야생화 염색 채색, 시 낭송 등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숲속여가’ 행사가 기다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축제의 주인공인 ‘베베나’다. 개화 시기를 잘 맞춘 덕분에 일찍부터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동화면을 대표하는 ‘동화나라 베베나축제’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백양사 등 장성의 명소도 함께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광양시 ‘시민의 상·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접수

내달 31일까지…10월 시민의 날 시상

광양시는 24일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광양시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출향인사)’ 수상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시민의 상’은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환경, 지역개발, 문화홍보, 공공복지,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의 명예를 높여 모두의 귀감이 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문화·관광·과학·산업·경제 등 각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

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광양시의 명예를 빛낸 출향 인사에게 수여된다.

후보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광양시장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은 오는 10월8일 열리는 2025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서식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교부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총무과(061-797-3219)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양홍렬 기자



##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실종 예방 모의훈련

실종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강화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치매극복 선도 학교로 지정된 금성중학교에서 치매 환자 실종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금성초·중, 금성중학교 학생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치매 환자 실종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종 예방 교육을 받은 후 교내 곳곳에 설치된 QR 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해 실종자 정보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 확

인서 및 신고 접수서를 작성해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훈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종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실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석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장은 “이번 훈련은 실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사례 관리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 명품 곡성멜론, 싱가포르 첫 수출길

곡성군은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곡성멜론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2025년산 명품 곡성멜론이 5월 첫 출하를 마친 후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은 곡성읍 내에 소재한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5년 곡성멜론 첫 수출 상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수출 물량은 8kg들이 800박스, 총 65t 규모로 20t(피트)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수출된다.

곡성은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일조량이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토양 내 유기물 함량 또한 높아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멜론 생산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멜론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선별체계 구축,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등 유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멜론 작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뤄내며 품질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곡성=김영필 기자